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이운형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연초부터 시작된 유가급등 지속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불거진 경기침체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기업 경기 및 자금사정을 조사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8년 7월 동향 및 8월 전망)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업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자금사정도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 원인이 유가급등 등 국제경기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본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지역 등 각 자치단체가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몇 가지 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중소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금융은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 중심은 전국적 규모를 가진 대형은행이 되고, 지방은행·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은 지역금융기관의 영역은 크게 축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 규모의 대형은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금융기관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스스로가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보 및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기타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제품 판로의 체제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자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애용하고 구매한다면 지역경제를 지켜온 향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지역제품 판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구매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지원체제의 구축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포상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볼만 하다.

셋째, 중소기업공업단지 재정비 및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산업단지를 확보하여 공급해야 한다. 최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등 산업단지 관련규제가 대폭 개선되었고,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이탈방지와 새로운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넷째, 지역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지역 중소기업 간의 경쟁만이 아닌 글로벌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 일찌감치 보호막을 걷어내고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아진 상태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보호를 받으며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각종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방안을 찾아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감안하여 그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여 중소기업의 사기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혁파,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고통을 분담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